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庵日佛

05²⁰²⁴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5

시절 인연	02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7	극복
법정 스님 편지	12	깊게 읽었었지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4	말없는 언약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사자빈신師子頻伸 비구니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그런 사람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5월 1일 발행 / 통권 351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및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된 인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진짜 부처님은 일찍이 오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지도 않았습니 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어디 한 군데 머물지도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을 우리는 찾아서 만났습니 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 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듣지 못 했다면, 이런 자리에 우리가 굳이 모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 다. 어떤 형상을 가진 부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더라 도, 그분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성(佛性)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부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처 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합 니다. 많은 경전 가운데서도 근본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합니 다. 대승 경전이라든가 그 밖의 경전은 아함경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된 경전들입니다. 아함경 중에서 가장 근본 경전이 ‘잡아 함경’입니다. 짤막짤막한 이야기로써 엮어진 경전인데, 이것을 남전(南傳(남방불교)에서는 상응부 경전이라고 하고, 한역 경전 에서 잡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카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자면 발가리경(跋迦梨經)입니다.

부처님이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 일입니다. 그때 바카리라 는 스님이 몹시 앓게 됩니다. 병이 매우 위중해서 도저히 회생 할 가망이 없어, 병시중을 드는 스님에게 부탁합니다. “스님! 미안하지만 부처님이 계시는 죽림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제 사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 병은 날로 더해서 회복할 가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저는 부처님을 한번 뵈고 예배를 드렸으면 싶은데 이 몸으로는 도저히 죽림정사 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 뜻을 부처님께 전해주시시오.” 이 스님의 소원은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뵈고 하직 인사라도 드리고 갔으면 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경전의 자세한 묘사는 부처님 발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를 대서 애경을 표합니다. 요즘도 인도나 남쪽에 가면 그대로 예배 의 방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부처님은 즉시 다른 일을 멈추고 서둘러서 그 환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환자는 병상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부처님이 그를 만류하면서 하신 말씀이 경전에 이렇게 기록 되어 있습니다. “바카리여,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누워 있거라. 병세는 어떠하냐? 무슨 약을 쓰느냐?” 아주 자상하게 병문안합 니다. 이때 바카리가 말합니다.

“저는 병이 위중해서 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제 소원은 죽기 전에 부처님을 뵈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 몸으로는 그렇 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은 경색하고, 바카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 다. 이 말씀이 경전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카리여! 언젠가는 썩어질 이 몸뚱이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찌자는 것이냐?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यो.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여기에서 말한 법은 이 세상의 도리이고,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리를 보는 일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凡所有相 개시허망 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 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 卽見如來’라는 사구계 四句偈가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우리말로 풀이하면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다.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깥에 연등이 눈부시게 걸려 있지만, 이 연등 또한 언젠가는 철거될 것입니다.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모두 한때입니다.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다. 모든 형상이 실상이 아닌 줄을 알면 그때 바로 여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래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결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80년의 생애를 산 성자 聖者가 생을 마치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열반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

고, 법을 등불 삼아라.”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타인입니다. 길을 가르쳐주시고 고마운 스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외롭지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 길상사에 오신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등불 삼고 있는가? 이 세상의 도리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도리를 등불 삼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 부처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몸소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불교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눈이 열리면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일상에 불교의 진리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혼을 빼앗기지 않고 늘 깨어 있으면서 삶의 지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혜와 자비를 몸소 행하는 그때 그곳에 부처님은 오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내 자신이 의지할 대상인가, 등불 삼으려는 존재인가 한번 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혹시 맺혔던 일이 있었다면 오늘 계기로 다 풀어버리세요. 이 바쁜 세상에 무엇 때문에, 절에 왔 습니까? 그동안 사소하든 크든, 가족 간이든 친구 간이든, 직장 의 동료 간이든, 무슨 일로 인해서 마음에 서운한 일이 있어서 맺혔던 일이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모자란 존재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 생활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의 길’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됐건 이웃이 됐건, 서운했던 관계라면 오늘 바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오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마음에 맺혔던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다 풀어버리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맞은편 마음도 편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으며, 관계가 바람직하고, 결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풍진 세상을 살아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 오신 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부처님의 분신分身이 되십시오.

이 시대, 이 지역에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보살佛菩薩의 소임所任을 다 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불자가 된 도리道理입니다.

여러 불자님! 복 받으십시오.

- 이 글은 2001년 5월 1일 부처님오신날에 법정 스님이 길상사 극락전에서 하신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극복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 193~206에 대한 강론입니다.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도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

초기교단의 수행자들이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기 위해 부정관不淨觀을 닦은 것도, 이런 경전을 통해서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굳이 부정不淨한 것으로만 생각하려는 것도 육신에 대한 또 하나의 집착일 수 있다. 살갓 속에 그와 같은 오물투성이인 이 육신을 가지고도 아름답고 어질고 착한 마음씨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몸 또한 빛과 향기를 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몸은 한편 악기와 같아서, 좋은 가락을 연주하면 아름답게 울리고, 추한 가락을 통기면 추하게 울리기 마련이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소극적인 삶의 태도와 적극적인 삶의 양식에 따라 인생은 얼마든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소극적인 삶보다는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더욱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

사회를 구축해 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 육신의 한계와 실상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 이런 되돌아봄이 없으면 인생이 자칫 오만해지거나 넘치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의 문필가이며 사상가인 랄프 W. 트라인이 쓴 <나에게서 구하라, 내 안의 무한한 지혜와 생명을 찾아서>(원제 In tune with the infinite, 류시화 번역)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에 고개를 끄덕이었다.

네 영혼의 방에 많은 창을 달아라
우주의 광명이 두루 비치도록
좁은 생각의 문구멍으로는
저 한량없는 빛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눈먼 관념유희 다 내던지고
하늘처럼 높고 진리처럼 드넓은
그 맑은 창으로 빛이 넘치게 하라.

그대의 귀를
저 소리없는 별들의 음악에
태초의 소리에 열어 놓고
그대의 심장을
꽃이 해를 보고 얼굴을 마주하듯
진리 쪽으로 고동치게 하라.

보이지 않는 천 개의 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평화의 바다로
그대를 데려가리라
수천만의 눈들이
환한 빛을 보내리라.

지적인 자만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진리가 들어오는 문을 막아 놓는 사람에게 진리는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다가올지 모르는 진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사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진리가 사망에서 다가온다는 것이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이나 흩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가 그에게 진리를 노래해 주고, 어디서나 그는 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다.

랄프 트라인은 에머슨, 소로우, 윌트먼 등과 함께 동양적인 근본 회귀(根本回歸) 사상에 뿌리를 둔 세계관으로 서양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책에서 그는 지네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 있게 하고 있다. ‘한 마리 지네가 백 개나 되는 다리로 걸어가고 있었다’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백 개나 되는 다리로 걸어가는 것은(사실은 기어가는 것이지만) 하나의 기적이다. 두 개의 다리를 조절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백 개나 되는 수많은 다리를 조절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네는 언제 어디서나 잘 조절해 왔다.

이런 지네를 지켜보던 한 마리 여우가 의문에 사로잡힌다. 여우라는 짐승은 항상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다. 우화 속에 등장하는 여우는 물론 일종의 상징이다. 지식과 분석과 논리의 상징. 여우는 보고 관찰하고 분석한다. 그런 다음 자기가 터득한 지식을 전파한다.

여우는 지네가 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도 아무 탈 없이 잘 걷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지네에게 다가가서 묻는다. “애, 잠깐 의문 생기는 점이 있다. 너는 어떻게 그 많은 발들을 조절하니? 한 발 다음에 어느 발이 뒤따라야 하는지를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백 개의 발이라니, 그 많은 발을 가지고도 너는 아주 유연하게 걷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과연 어떻게 이런 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지네가 대답한다.

“나는 평생을 두고 이렇게 그저 걸어 다닐 뿐이야. 그러나 한 번도 네가 묻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 내게 시간을 주어,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겠다.”

지네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네는 분리되었다. 관찰자의 마음과 관찰되는 자로서의 그 자신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지네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지닌 능력에 따라 언제나 살고, 걷고, 또 그렇게 되풀이해 왔다. 다리를 움직이는 자신과 다리가 둘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전체로서 하나였다. 그런데 여우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기자, 주체와 객체로 분리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지네는 다시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없었다. 이때 여우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걷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어. 나는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지네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전에는 결코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여우 네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이제 나는 다시 그전처럼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

지식이란 이처럼 위험한 것이라고 우화는 넌지시 일깨워 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우와 같이 의심이 많고 분별이 많으며 따지기 좋아하는 인물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던져 주고 있다.

그러면서 트라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목사건 신부건 승려건 혹은 철학자건 간에 이 우주의 무한한

진리를 표현하고 미화하고 전파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세 치 혀로써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충동시켜서 진리를 깨달은 스승이라고 숭배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참된 스승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리를 해석해 주지 않는다. 참된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깨달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도울 뿐이다. 제자의 내부 본질이 그대로 꽃 피어나 저 스스로 깨달도록 정열을 다 쏟는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이 순전히 자기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 혹은 개인적인 동기에 사로잡혀 서로 돋보이려고 애쓰고 있다. 또 자신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체하거나 깨달았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바보가 아니면 사기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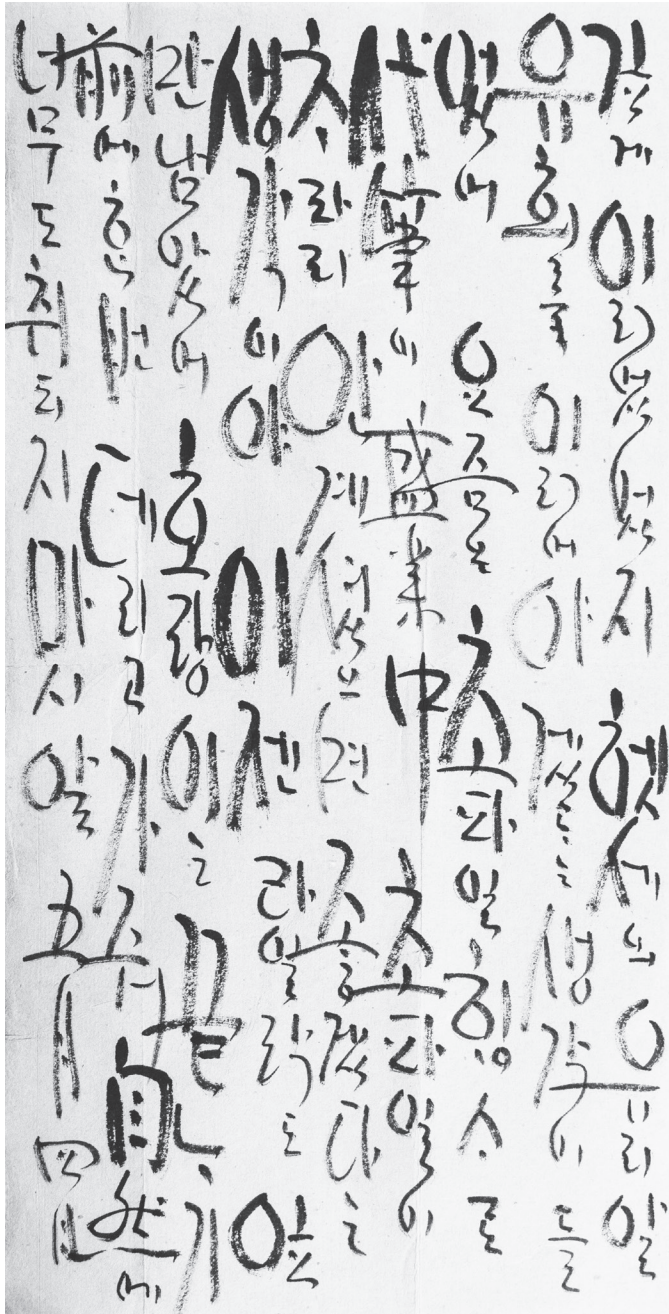
남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깊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남의 스승 되기가 어디 쉬운 노릇인가. 지식이나 지혜는 그만두고라도 인간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피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우의 분별과 따짐을 넘어서서,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지네처럼 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도, 즉 이 풍진세상의 온갖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경전의 글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경전이 어디 종이냐 활자로 된 책뿐이겠는가. 삶 그 자체가 진짜 경전 아닌가. 읽고 또 읽고 음미하면서 인생을 더 곱고 향기롭게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3. 법정 스님 편지



깊게 읽었었지
햇세의 유리알 유희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즘은 초파일 행사로
대필代筆이 성업중盛業中

초파일이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이젠 라일락도 잎만 남았어
호랑이는 끝나기 전前에 한번 데리고 가줘
자연自然에 너무 도취되지 마시길

5월 4일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3년 5월 반야화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말 없는 언약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름도 성도 기억하기 어려운 온갖 법률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얽어맨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규제가 꼭 있어야만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서슬이 퍼런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세상이 평온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시끄럽고 극악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법률이 늘어난다고 한 타키투스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무수한 그 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옛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다.

산길을 걸어가노라면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까 하여 돌무더기나 나뭇가지로 표시해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길에 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시가 얼마나 고마운 길잡이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언어나 문자를 빌리지 않고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른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표시는 우리를 규제하기는커녕 기쁘고 감사하게 한다. 약속도 이렇듯 인간적인 신의에 바탕을 둘 때 신성한 것이다.

언젠가 은사인 효봉 선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선사가 젊은 시절 훗훗 떨치고 남과 북으로 운수행각을 할 때, 한 암자에는 예전부터 말 없는 언약이 지켜져 내려왔다. 지대가 높고 인적

이 미치지 않는 그 암자에서 선승들은 여름 한 철을 착실하게 정진할 수 있었다. 시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봄에 가서야 걷히므로, 시월 중순께가 되면 하산을 서둘러야 했다. 선사가 여름철 안거를 하기 위해 그 암자에 도착했을 때, 빈집에 양식과 장작이 쌓여 있고 뒤뜰에 묻힌 독에는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선사는 그 여름을 먹고 땀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하산하기에 앞서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하여 그 것처럼 양식과 김장을 마련하고 땀감을 해두었다.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그곳에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지낸 흔적이 있었지만, 양식과 땀감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귀에는 까마득한 신화나 이끼 낀 전설처럼 들려오지만, 그 시절 그 암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가풍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말 없는 언약이었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신의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습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강제성도 제재도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착한 의지가 작용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이 같은 사람을 못 미더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리는 풍토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다짐하고 두껍고 질긴 종이에 서명 날인한다 할지라도 저 말 없는 언약에 미칠 수 없다.

얼마 전 지리산 등반길에 해발 1천7백 고지나 되는 외딴 암자에서 묵고 온 일이 있다. 넓지도 않은 방 안 벽장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씩씩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고봉 정상에서 잃어버릴 게 무엇이기에 쇠를 채워 놓았을까 싶어서였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말 없는 언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1975

사자빈신師子頻伸 비구니

선재동자는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그 나라에 이르러 사자빈신 비구니를 두루 찾아다녔다. 여러 사람들이 말했다.

“그 비구니는 승광왕勝光王이 보시한 일광원日光園에서 법을 설해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선재동자는 곧 그 동산으로 가서 두루 살펴보았다. 그 동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만월滿月이고 모양은 누각과 같고 큰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었다. 또 잎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보복普覆이며 모양은 일산과 같고 비유리毘琉璃의 검푸른 광명을 놓았다. 또 꽃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화장華藏이었다. 모양이 높고 커서 설산과 같으며, 꽃비를 내려 다함 없음이 도리천切利天的 파리질다라수波利質多羅衛 같았다.

선재동자는 사자빈신 비구니가 보배나무 아래 놓인 큰 사자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몸매가 단정하고 위기가 조용하며 여러 감각感官의 고르기가 큰 코끼리 같고, 마음에 때가 없음이 맑은 못과 같았다. 구하는 대로 널리 베풀어 줌이 여의보如意寶와 같고, 세상 법에 물들지 않음은 연꽃과 같고, 마음에 두려움 없기는 사자왕과 같고, 청정한 계율을 지녀 흔들리지 않음은 수미산과 같았다. 보는 이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함이 미묘한 향 같고, 중생의 온갖 번뇌를 덜어 줌이 설산에 있는 전단향梅檀香과 같고, 보는 중생

의 고통이 소멸됨은 선견약善見藥과 같고, 보는 이마다 헛되지 않음은 바루나천婆槽那天과 같고, 모든 선근의 싹을 길러 줌은 기름진 밭과 같았다.

선재동자가 보니, 여러 길에 있는 중생들 중에서 이미 성숙한 이와 이미 조복한 이와 법의 그릇이 될 만한 이들은 모두 이 동산에 들어와 있었다. 저마다 자리 아래 둘러앉았는데, 사자빈신 비구니가 그들의 욕구와 이해가 승하고 승하지 못한 차별을 따라 법을 설해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했다.

왜냐하면 이 비구니는 넓은 눈(普眼)으로 모두 버리는 반야 바라밀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모든 불법을 말하는 반야 바라밀문과 법계 차별의 반야 바라밀문, 모든 장애의 바퀴를 무너뜨리는 반야 바라밀문, 모든 중생의 착한 마음을 내는 반야 바라밀문, 훌륭하게 장엄하는 반야 바라밀문, 걸림 없는 진실장藏 반야 바라밀문, 법계에 원만한 반야 바라밀문, 마음 갈무리(心藏) 반야 바라밀문, 두루 태어나게 하는 반야 바라밀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열 가지 반야 바라밀문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백만 반야 바라밀문에 들어갔으니, 이 일광원에 있는 보살과 중생들은 다 사자빈신 비구니가 처음으로 권해 발심시켰고, 정법을 받아 지니고 생각하고 닦아서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한 이들이었다.

이때 선재동자는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정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비구니가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다.”

“어째서 모든 지혜를 성취한다고 합니까?”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사이에 삼세의 모든 법을 비추기 때문이다.”
“성자시여, 이 지혜의 광명은 그 경지가 어떠합니까?”

비구니가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이 광명문에 들어가 모든 법을 내는 삼매를 얻었고, 이 삼매로 말미암아 뜻대로 태어나는 몸을 얻었다. 그래서 시방 모든 세계의 도솔천궁兜率天宮에 있는 일생보처보살一生補處菩薩 처소에 나아가고, 그 낱알 보살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몸을 나타내며, 낱알 몸으로 한량없는 공양을 했다. 이른바 천왕의 몸에서 인간 왕의 몸에 이르기까지 꽃구름을 들고 화만 구름을 들고, 사르는 향·바르는 향·가루 향·의복·영락·당번幢幡·비단·일산·보배 휘장·보배 등燈과 같은 온갖 장엄거리로써 공양했다.

도솔천궁의 보살 처소에서처럼 태에 머물고 태에서 나오고, 집에서 살다가 출가하고, 도랑에 나아가 정각을 이루고, 바른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데, 그러는 사이에 천궁에 있기도 하고 용궁에 있기도 하고 사람의 궁전에 있기도 하는 그 여래들의 계신 데서 이와 같이 공양했다.

어떤 중생이거나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께 공양한 줄 아는 이는 모두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았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반야 바라밀을 말해 주었다.

나는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온갖 말을 들어도 말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기 때문이며, 여래를 뵈고도 여래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신에 통달했기 때문이며, 모든 법륜을 주지住持하면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의 자성自性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허깨비 같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일체지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마음에 분별이 없어 모든 법을 두루 안다. 단정히 앉아서도 한 몸이 법계에 가득하며, 자신의 몸 속에 모든 세계를 나타내며, 잠깐 동안에 부처님 계신 대로 나아가며, 자신의 몸 속에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나타내며, 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중생들과 함께 있으며, 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많은 겁劫에 들어가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한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험난險難이다. 그 나라에 보장엄성善莊嚴城이 있는데, 그 성안에 바수밀다婆須蜜多 여인이 살고 있다.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파리질다라수波利質多羅衛 : 콩과에 딸린 식물, 꽃은 주머니 모양으로 크고 붉음. 도리천의 제석궁帝釋宮인 선견성善見城의 동북쪽에 있다고 함.

*전단향栴檀香 : 상록수로 나무에는 향기가 있음. 조각도 하고 뿌리와 함께 가루를 만들어 향으로 쓰고 향유를 만들기도 함.

*바루나천婆槽那天 : 인도 신화에 나오는 천신天神. 밤의 큰 허공을 신격화한 것.

*일생보처보살一生補處菩薩 : 한 생만 지내면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보살. 보살로서의 최고 지위.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안내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라는 서원과 함께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마음으로 연등 하나는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밝히는 ‘자비의 등 달기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모여진 성금은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전액 재가복지 대상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자비의 등’의 동참금은 1인 최소 10,000원 이상(등표에는 1명의 이름만 기재함)
- 후원금을 보내실 때 입금자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세요..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6.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그런 사람

봄이면 꽃마다 찾아가 칭찬해 주는 사람
남모르는 상처 입었어도
어투에 가시가 박혀 있지 않은 사람
숨결과 웃음이 잇닿아 있는 사람
자신이 아픈이면서 그 아픔의 치료제임을 아는 사람
이따금 방문하는 슬픔 맞이들이되
기쁨의 촉수 부러뜨리지 않는 사람
한때 부서져서 온전해질 수 있게 된 사람
사탕수수처럼 심이 거칠어도
존재 어느 층에 단맛을 간직한 사람
좋아하는 것 더 오래 좋아하기 위해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
어느 길을 가든 자신 안으로도 길을 내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기 영혼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
내어 주는 사람
아직 그래 본 적 없지만
새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의 얼굴 찾아서
지상에 많은 발자국 낸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자신에게 너무 작다는 걸 아는 사람
어디에 있든
자신 안의 고요 잃지 않는 사람
마른 입술은
물이 보내는 소식이라는 걸 아는 사람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2024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4월 13일(토) 2024년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으로 2023년도 회계&사업 감사 보고서, 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 승인,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덕조스님, 덕일스님, 이금지, 이수찬, 김진홍, 김춘형, 전병진, 나민수, 박호상 9인의 등기이사를 선임하였고, 임종길, 유송연 2인의 비등기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덕일스님을 6대 이사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본회가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모임이 되도록 여러 회원님과 자원봉사자님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맑고 향기롭게 제5기 대학 장학생' 선발 일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 25여 명을 선발하여,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모임의 장학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약 13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합격자 대상 면접 평가 : 5월 4일(토)
- 장학생 최종 선정자 결과 발표 : 5월 9일(목) / 분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장학 증서 수여식 : 5월 18일(토)
- 상반기 장학금 지급일 : 5월 23일(목)
- 장학생 토크라이프 : 6월 22일(토) / 길상사
- 하반기 장학금 지급일 : 11월 12일(화)
- 문의처 : 법인 사무국 02)741-4696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 숲기행 일정 안내

맑고 향기롭게 숲기행은 법정 스님 인연 사찰 "옛 절을 찾아서"로 진행됩니다. (상반기 일정)

진행일	장 소	접수일
5월 25일(토)	경남 하동 쌍계사, 화엄사	5월 1일(수)
6월 29일(토)	경남 양산 통도사	6월 3일(월)

- 참가비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2일(목)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남 모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접수 총무소 02-3672-5945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관음재일

- 일시 : 5월 2일(목), 3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5월 4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5월 8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행렬

- 일시 : 5월 11일(토) 오후 6시
- 1호선 종로5가역 4번 출구에서 동대문 방향 100미터 직진 백수약국 앞
※ 조개는 5월 1일(수) ~ 10일(금)까지 중무소에서 배부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 일시 : 5월 15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관불의식은 오전 9시부터 극락전 앞마당에서 봉행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제22회 길상음악회

- 일시 : 5월 15일(수) 오후 7시
- 장소 : 극락전 마당
- 출연 : 기타리스트 박석주, 창무 안무가 김미선, 포크가수 디안, 예술이음 소리스, 안치환과 자유

마가 스님(자비명상 이사장) 초청 일요가족법회

- 일시 : 5월 19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백중 아미타기도 입재 및 하안거 결제

- 일시 : 5월 2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5월 2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5월 25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도심 속 달빛 요가(YOGA) 수강생 모집

- 일 정 : 5월 7일(화) ~ 30일(목) / 매월 총8회
- 시 간 : 매주 화·목 19:00~21: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15만원(부부 동반 24만원)

불교입문 47기 수강생 모집

조계종인가 신도 기본교육 과정

- 일 정 : 5월 23일(목) ~ 8월 8일(목)
-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10만원
※ 6월 1일은 휴강입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